

# 2014년 하반기 IMO 주요 동향

해사안전연구센터 조민철

## 1. 하반기 IMO 회의결과

### ▣ 제64차 TC 위원회\* 회의참석(14. 6. 11~6. 13)

\* 기술협력위원회 :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 □ 회의개요

○ (회의명) 제64차 IMO 기술협력위원회(TC 64) 회의

\* 의장 : Mrs. Nancy Karigithu(케냐) / 부의장 : Mr. Zulkurnain Ayub(말레시아)

○ (참석자) 회원국(75개국), IGO(7개), NGO(6개) 대표 등 약 150명

\* 아국(총 4명) : 주영대사관 해양관, IMO 연락관, 자문 2명 (해양수산연수원, KST)

####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3) 사무국으로부터 ITCP 관련 지역 및 국제차원의 활동 결과에 대한 2013년 성과 및 재정\*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함

- 베트남 등 다수의 수혜 회원국은 ITCP 프로그램의 시행 성과에 주목하고 IMO 차원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함

\* '13년은 총 17.5백만 달러의 예산 대비 15.3백만 달러를 집행하였으며, 이는 ITCP 사업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예산 집행률(87%)를 기록함

○ (의제 5)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와 연계한 '13년 IMO의 ITCP 활동성과에 대해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함

- IMO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MDG의 의미를

재강조하면서, UN의 Post-2015 Agenda와 연계하여 신규 개발의제(Develop Agenda)에 따른 IMO의 새로운 ITCP 활동 목표를 차기에 논의하기를 희망함

○ (의제 7) '16. 1. 1일부터 강제 시행하는 회원국 감사제도와 관련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 (VIMSAS) 현황에 대해 논의함

- 현재까지 감사관 교육은 38개 지역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체 150개국에서 600명이 교육을 이수함

- 사무총장은 '16년 MAS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가 기술협력위의 최우선과제라고 언급하면서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함

○ (의제 9) IMO 지원 교육기관(WMU), 국제해사법대학원(IMLI) 및 국제해사안전보안환경아카데미(IMSEA)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함

- 다수의 회원국은 WMU의 장기적인 차원의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회원국 지원이 지속 필요함을 언급함

\* 최근 WMU 학장 Dr. Bjorn Kjerfve의 사임으로 금년 말까지 후임학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당분간 부학장인 Neil Bellefontaine 교수가 임시학장 (Acting) 업무 수행

○ (의제 13) 실효적인 ITCP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국가해사개요(Country Maritime Profile) 작성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함

- IMO 사무총장은 CMP가 ITCP 사업 선정과 국가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본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함

- \* 아직까지 CMP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조속한 제출을, 제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료의 최신화를 각각 요청함

## ■ 제112차 이사회 참석('14. 6. 16~6. 19)

### □ 회의개요

- (회의명) 제112차 IMO 이사회(Council 112) 회의

\* 의장 : Mr. J. Lantz(미국) / 부의장 : Mr. D. Ntuli(남아공)

- (참석자) 회원국(40개국), IGO, NGO, 옵저버 대표 등 285명

\* 아국(총 6명) : 주영대사, 해양관, IMO 연락관, 오행록홍, 자문 2명 (KR, KST)

###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5) '16. 1부터 시행예정인 IMO 회원국 감사제도(MAS)에 대한 사무국 준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

- 강제감사는 '16. 1. 1일부터 순서에 따라 시행함(3명 감사관으로 1개 팀 구성, 7년 주기로 전체 연간 약 25회 회원국 감사 실시)

- 감사관 구성방식은 소요비용과 감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무국에서 추천한 구성방식 3안을 채택(사무국 소속 1명 + 회원국 추천 2명)

- 감사관 여비는 IMO의 예산(regular budget)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수감국내 이동 여비는 해당 수감국에서 부담하기로 함

- 아국은 122번째 수감 예정으로 '19년말 수감이 예상됨

- (의제 10) 사무총장은 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함

\* 동 의제논의시 이태리측의 해상보트 난민(북아프리카 → 지중해 → 남유럽) 인명구조 상황 설명에 대해 몰타, 남아공, 그리스 등이 국제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함(동 건은 IMO 사무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IMO 개입 필요성을 언급한 사항임)

- (의제 4) IMO 예산 및 인적자원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함

- 특히, '13년 회계연도의 IMO 재무제표, 이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서, 투자현황/수익 보고, 분담금 연체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 또한, 운영자본기금(Working Capital Fund\*) 고갈 방지를 위해 하한선을 150만 £로 설정하고 그 이하가 될 경우 2백만£까지 충당기로 함

\*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환차익 보전을 위해 운영 중인 기금

- (의제 15) 기타 외부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함
- (세계해사의 날) “해사교육 및 훈련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을 15년 주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함

\* 차기 세계해사의 날 기념식('15년 : 일본 개최 예정 / '16년 : 터키 개최 제안)

- (국제해사상) 멕시코의 호세 살가도 교수(前 멕시코국립대)를 국제해사상(International Maritime Prize) 수상자로 선정함(회원국 비밀투표로 결정)

- (바다의 의인상) 최고상은 덴마크 추천 후보(Capt. Andrea Kristensen 및 승무원)가 수상자로 선정됨

\* 아국이 추천한 4건의 후보 중 2건(남해해경 특수

구조대, 포항해경 122 구조대)이 우수상(Certificate)을 각 수상함. 시상식은 '14. 11. 17. IMO 본부에서 개최됨

▣ NCSR 1 회의참석('14. 6. 30~7. 04)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1차 항행통신·수색구조 전문 위원회(NCSR 1) 회의
- \* 의장 : Mr. Carlos Salgado(칠레) / 부의장 : Mr. Ringo Lakeman(네델란드)
- (참석자) 회원국(119개국), IGO, NGO, 옵저버 대표 등 총 240명
- \* 아국(총 15명) : 정부 6명(해양관, IMO 연락관, 오행록북 등) 자문 9명(KR 등)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9) CG 작업반에서 마련한 IMO e-Nav 전략이행계획(SIP) 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을 위해 차기 해사안전위(MSC94)에 제출하기로 함
  - 당초 계획한 e-Nav SIP 검토를 위한 작업반은 구성하지 않고, 제출된 문건을 통합하여 사무국이 최종 문안을 정리하기로 함
  - 향후 e-Nav 관련 추진계획 및 일정은 MSC 주관으로 추진하되, 국제수로기구(IHO) 등 기타 희망기관이 참여하여 진행하기로 함
  - 전략이행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e-Nav의 국제적 시행을 위하여 IMO 주도의 e-Nav 추진체계 확립 필요성이 제기됨
- \* 사전에 10개국(아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등) 비공식 협의를 통하여 상기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여 호주가 대표 발언함
- 차기 회의시 SIP 관련 IMO 지침서(HCD,

UTEA, SQA) 단일화 작업 검토안 제출을 위해 통신작업반(CG)을 운영(호주 의장)하기로 함

- (의제 5) 종전 ECDIS 관련 7개 IMO 회람 문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해사안전위원회 회람(Guidance for Good Practice) 초안을 마련함
  - 동 회람문서 초안 중 ECDIS 훈련 및 시뮬레이터 사용 관련내용 추가 검토를 위해 인적·훈련 및 당직 전문위(HTW)에 전달하기로 함
- (의제 8)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주관으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 운영 제반사항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함
  - 지난 '12. 10~'13. 3월간 진행한 회원국 LRIT 연차감사 결과를 논의하고 주요 부적합 사항 지적 국가에 대해 조치현황 및 계획을 청취함
  - \* 아국은 동 지적에 보완조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IMO측에 결과 확인을 요청함
- (의제 12) GMDSS 서비스 제공자로 미국의 Iridium 위성에 대한 지지 표명이 있었으나, 일부 국가들은 기술적 요건 보완 필요성을 지적함
  - 지적된 사항을 포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된 전문기구에 제출하기로 하고, 차기 MSC에 해당 전문기구 결정을 요청하기로 함
  - \* 국제이동위성기구(IMSO)가 전문기구라는 점이 제기된 바 있으나, 관련 총회 결의서 및 회람문서 규정이 모호함을 고려, Committee에 판단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 (의제 13) 통신작업반에서 검토된 세계해상 조난·안전제도(GMDSS) 현대화 작업내용을

- 보고 받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함
- 동 사안은 NCSR 차원에서 e-Nav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기로 결정함
- GMDSS 현대화 프로젝트 관련 상세 검토를 위한 개요(Outline)가 승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작업반\*(CG)이 구성됨(미국 의장)
- \* (작업계획) GMDSS 세부 검토초안 추가 개발, SOLAS 4장의 잠정 문구 초안 검토, 동 결과를 IMO/ITU 전문가그룹 회의 검토를 거쳐 차기 NCSR 회의에 제출

■ III 1 회의 참석('14. 7. 14~7. 18)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1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1) 회의
  - \* 의장 : Capt. Dwain Hutchinson(바하마) / 부의장 : Mrs. Julie Gascon(캐나다)
  - (참석자) 회원국(77개국), IGO, NGO, 옵저버 대표 등 약 200명
  - \* 아국(총 6명) : 정부 3명(해양관, IMO 연락관, 오지실 쉐), 자문 3명(KR, KST)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3) SOLAS 협약 비적용 선박(소형 어선 및 연안여객선 등)에 대한 기준인 GlobalReg 모델 규정에 대한 IMO 검토전략을 논의함
  - 사무국은 자문단 운영을 통해 2017년까지 규정 검토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차기회의까지 검토 전략\*을 제출하기로 함
  - \* 지역적 요건, 일관성 평가 및 용어(협약 비적용 선박) 적용 문제 등 검토

- (의제 5) '10년 이후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 IMO에 제출된 주요 사고조사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업반에서 논의함
- 통신작업반(CG)이 선별한 선원 안내용 교훈사례(31건)를 검토하여 최종 25건 (인명 사상 5건 등)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기로 함
- \* 코스트 콩고디아호 사고 등 일부 중대 해양사고 조사보고서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교훈, 시사점 등)을 IMO 통합정보시스템(GISIS)에 반영기로 함
- \*\* 홍콩측이 제출한 문건(아국에 대한 Maritime Maisie호 피난지 제공 감사)은 정보 문서로 별도 소개없이 본 회의장에서 주목함
- (의제 6, 7, 8) 효과적인 항만국 통제(PSC) 시행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작업반을 구성, PSC 지침(안), 회람문서 등을 집중 논의함
- PSC 지역협력체 사무국 및 정보센터 관리자 참석 워크숍 관련 개최 방안(IMO 비용 지원 중단)은 대부분 옵션 1\*을 지지함(의제 6)
- \* 옵션 1 : 주기(2~3년, 1회/1일), 장소(IMO본부), 참석자(MOU별 1명)
- 사무국이 제안한 각 PSC MoU의 국제협약 프로그램 제공 방향과 관련하여 비용문제를 우려하면서 대부분 옵션 2\*를 지지함(의제 6)
- \* 지역·글로벌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동 회의 의제와 연계하여 IMO 초청으로 KR측에서 7. 15일 발표회를 함)
-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이행, 선원의 휴가시간 등에 관한 PSC 지침 및 회람문서(circular)의 초안을 마련함(의제 7)
- \* 추후 MSC/MEPC에 상정, 필요시 소관위원회를 거쳐 최종 동 위원회 승인 예정
-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BWM) 협약 관련 PSC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MEPC 67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함(의제 8)

\* 검사방식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대다수는 4단계 방식(일본 제출)에 대해 동의함. 다만, 시료 샘플링 및 분석 등의 문제는 MEPC 67에 결정을 요청키로 함

- (의제 10, 11) 검사 지침 및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III) 이행 등 논의
  - 비자향 무인 바지선의 해양오염방지증서 발급 면제와 관련, 지침 및 MEPC 회람문서 초안을 마련함(의제 10)
  - 출항정지 해당 주요 결함사항에서 국제선급 협회(IACS)의 개정안 등을 반영하여 검사 지침(Survey guidelines) 개정안을 마련함
  - FRP 선박의 용골 거치일에 대한 IACS가 제출한 통일해석안에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의제 11)

■ CCC 1차 회의개최('14. 9. 8~9. 12)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1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 위원회(CCC\* 1)
  - 의장 : Mr. Xie Hui(중국) / 부의장 : Mr. Patric Van Lancker(벨기에)

\* The 1st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 (참석자) 회원국(97개국), IGO, NGO, 옵저버 대표 등 약 460명

\* 아국(총 7명) : 정부 2명(해양관, IMO 연락관), 자문 5명(KR, 위험물검사원)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3) '7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 협약(CSC) 개정 및 관련 회람문서(Circular) 개발 문제 등에 대해 논의

- (의제 4) “가스 또는 저인화점연료의 사용에 관한 선박안전 국제 규칙(IGF\* Code)”의 개발 이슈를 집중 논의

\*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 IGF Code 최종(안)과 함께 동 Code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안 작업을 완료하고, 94차 해사안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 IGF 적용 대상선박은 SOLAS와 동일하게 적용 (500GT 이상 화물선)

- LNG 이외에 연료 전지 및 다른 저인화점 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관련 지침 개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함(통신작업반)

- (의제 6) IMDG Code\*와 부록의 개정 사항에 대해 논의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국제해상위험물규칙)

- 아국의 ‘포장화물 및 화물운송기구에 대한 표시 및 표찰 지침’에 대해 영국이 UN 위험물 운송위(UNTDG)에 문서 제출을 권유함

\* 동 문서를 금년('14. 12) 제46차 UNTDG에 복합 운송을 위한 지침 개발에 활용

■ FAL 39 회의개최('14. 9. 22~9. 26)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39차 해상교통간소화(FAL) 위원회 회의

\* 의장 : Mr. Yury Melenas(러시아) / 부의장 : Mrs. Marina Angsell(스웨덴)

- (참석자) 75개 회원국, 30개 NGO 및 IGO 대표 등(약 370명)

\* 아국(10명) : 정부대표 6(해양관, 해수부, 법무부, 관세청), 자문 4(KST, KL-Net 등)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4) 작업반을 통해 FAL협약 개정안 마련(차기 회의시 채택예정)
    - 입·출항에 필요한 각종 증서의 전자전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협약 개정안 시행은 채택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함
    - 또한, 동 전자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동 시스템 사용의 강제화는 도입된 날로부터 12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함
  - (의제 5) 선박 증서(약 30종)의 전자버전과 열람에 대한 논의
    - 전자 증서의 출력 버전(장치 스크린 등)은 임시 관련지침(FAL.5/Circ.39)에 따라 종이 증서와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재확인함
    - 컴퓨터로 접근 가능한 전자 증서는 “선상(on-board)”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MSC, MEPC에 관련 회람문서 개정 검토를 요청키로 함
    - 전자 증서를 사용 기록하기 위해 GISIS 모듈(예 : Survey & Certificates) 개선 및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관계 당국을 독려키로 함
  - (의제 7) 캐나다가 제안한 해상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잠정안을 우선 도출하고, 향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함
    - 해양분야 전산 및 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 지침안\*을 마련함
- \* 해양사이버 보안사고 유형 및 단계별 취약요소 식별, 접근 제어, 네트워크 설계, 침입 감지, 통신 보안, 관리방법 등 규정

■ 제10차 IMO/ITU 해상무선통신 합동전문가 그룹회의\* 개최('14. 10. 6~10. 10)

\* The 10th Meeting of the Joint IMO/ITU Expert

Group on Maritime Radio Communication Matters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10차 IMO/ITU 해상무선통신 합동전문가그룹회의
- (참석자) 20개국, 관련 산업계 등 총 80명 (의장 : Mr. Kim Fisher / 영국)
- \* 아국 참석(3명)

□ 주요 논의결과

- (e-Nav 이행 협력) e-Nav 이행을 위해 무선 통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GMDSS 현대화 작업에 e-Nav 요구사항 검토의 필요성 제기됨
- (SOLAS 제4장 개정) SOLAS 비적용선박(어선 포함)에 조난통신장비 설치를 강제화 하자는 제안(프랑스 제안, 일본 및 덴마크 동의)이 있었으며, 다수 국가의 의견대로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검토키로 함
- \* 선박 對 항공기 간 통신을 위해 항공 주파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무선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자는 제안(프랑스)은 차기 전문위(NCSR 2)에서 논의키로 함
- (GMDSS 현대화 작업) 장비 현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IMO 성능기준, ITU 기술 권고 등이 개정된 후에 하기로 합의

■ MEPC 67 회의개최('14. 10. 13~10. 17)

- (회의명) 제6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MEPC 67)

\* 의장 : Mr. Arsenio Dominquez(파나마) / 부의장 : Dr. Naomi Parker(뉴질랜드)

- (참석자) 회원국(117), 준회원국(3), 국제기구 및 NGO 대표 등(998명)
- \* 아국 : 정부대표 3, 자문단 15(KR, KST, KIOST, 목포해양대, 조선 및 해운사 등)

■ 제101차 LEG 회의('14. 4. 28~5. 02)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101차 법률위원회(LEG 101)
- \* 의장 : Mr. Kofi Mbiah(가나)
- (참석자) 119개 회원국 및 NGO 등 450여명
- \* 아국 : 정부대표 2, 자문단 2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2) BWM 협약과 관련 사무국의 연구 제안서를 채택하고, G8 개정 검토를 위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고 관련 결의서를 채택함
  - 현행 정부형식승인지침서(G8)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평형수처리설비의 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무국 연구제안서를 채택함
  - ICS 등 선주단체가 제안한 필요사항 및 협약 발효 전 현행 규정에 따라 BWMS를 설치한 선주들에 대한 처벌 면제\* 등을 반영한 결의서를 채택
  - \*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관련 법적 사항에 대해 차기 회의 시 문서제출을 요청
- (의제 3) 선박의 설비 및 시설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량의 검출 경계 조건에 잠정 타협안\*이 도출됨
  - 관심 국가 간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협약의 발효 후 5년간은 1.0% 사용이 허용되며, 그 이후에는 0.1%로 한다”는 데 잠정 합의함
  - \* 유럽 국가들은 주로 0.1%를 지지한 반면 중국은

- 1.0%를 지속 주장해 온 바, 일본과 아국은 중국을 동 협약 당사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타협안을 지지함
- (의제 4) 선박 공급 연료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황천 시 최소출력에 대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연장 적용하기로 함
  -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 품질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 정립을 위해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함
  - \* 정부가 선박의 연료유 공급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MARPOL 부속서 6 제18.9규칙 개정안이 제안됨
  - 황천 시 현 최소출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국 입장대로 현행 권고(Phase 0, '14 종료)를 Phase 1('15. 1~'20. 1)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함
  - \* 일본이 제안한 디젤 전기추진 LNG선의 전기효율 검증 방법은 아국 등 반대의견 등이 반영되어 삭제하기로 결정함
- (의제 5) 선박 연료소비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제출된 제3차 IMO GHG 연구 2014 보고서를 승인함
  - 선박운항효율 규제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연료 소비량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 끝에,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을 결정함
  - \*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강제적 시행 여부 및 수집 데이터의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
- (의제 6) MARPOL 등 협약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남극지역 운항선박에 대해서는 평형수 탱크로 중질연료유의 운송 및 사용을 금지 시키기 위하여 MARPOL 부속서 1장의 개정안을 채택함
  - 포장된 형태의 유해물질 식별기준에서 방사능 물질은 해당사항이 아님을 언급하는

- MARPOL 부속서 3장의 개정안을 채택함
- (의제 9) Polar Code와 관련된 MARPOL 부속서 개정안을 승인함
  - 선박의 이중선체 건조 조건, 화물잔유물의 투기허용 여부, Single voyage 선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
- \* 연간 1~2회만 운항하는 Single voyage 선박의 증서 재발급 또는 업데이트 등의 행정적 부담경감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적 부담이 없으므로 결정됨
- 차기회의(MEPC 68차)에서 동 Code를 채택하기로 결정함

■ IOPC 펀드 회의개최('14. 10. 20~10. 24)

□ 회의 개요

- (회의명) 2014년 10월 국제유류오염배상 기금 (IOPC) 회의\*
- \* 1992 Fund 제19차 임시총회(Assembly)  
1992 Fund 제62차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1971 Fund 제32차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Supplementary Fund 제10차 정기총회(Assembly)
- (참석자) 회원국(65), 5개 옵저버국 및 12개 NGO 대표 등 82명 참석
- \* 아국(총 9명) : 정부대표 6명, 자문단 3명(해사위험 물검사원, 충남도 등) 참석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1) 아국 출신 현 추가기금 의장(해양수산부 김성범 과장, 4연임)을 포함하여 현 IOPC 기금 의장을 차기 년도 의장으로 재선출함

\* 92 기금 총회 - Mr. Gaute Sivertsen(노르웨이), 92 집행이사회 - Ms. Welmoed van der Welde (네덜란드), 71기금 - Mr. David J F Bruce(마셜 아일랜드)

○ (의제 2) 현 IOPC Funds 관련사고(71 펀드 5건, 92 펀드 7건) 진행사항에 대해 사무국 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함

○ (의제 4) 펀드 보상과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함

- (집행 이사국) 아국 등 15국\*이 차기 총회 까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됨

\* 캐나다, 인디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한국, 스페인 알제리, 바하마, 카메룬, 마셜아일랜드, 멕시코, 나이지리아, 스웨덴, 터키(이상 15국)

○ (의제 8) 71펀드 청산 관련 '14. 5월 행정이사회 결정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이 대립되어 찬반투표(찬성 29, 반대 14, 기권 3)를 통해 최종 '14. 12. 31까지 청산하기로 결정함

- 아국 등 기여국은 청산이 지연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분담금의 징수 곤란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 청산을 지지한 반면, 영국 및 P&I 클럽 등은 금년말 청산을 반대하며 청산 연기 필요성을 제기함

- 최종적으로 청산 문제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후, 청산 후속조치 관련 결의서 (No.18\*)를 채택함

\* 보유기금 잔액에 대해 사무국은 지난 결의서 No.18에 따라 해당 기여자에게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WMU, IMLI, IMSSEA에 균등하게 기부하도록 조치

○ (의제 9) 사무국에서 보고한 71펀드, 92펀드 및 추가기금의 '13년 결산 및 '15년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분담금을 의결함

- '15년도 기금 분담액으로 92기금 General

Fund에 3.8백만 파운드의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92기금 Major Claims Fund 및 추가기금은 분담금 없음

▣ LC/LP 당사국총회 개최('14. 11. 03~11. 07)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36차 런던협약(LC) 및 제9차 런던의정서(LP) 합동당사국총회

\* 의장 : Mrs. Sue Milburn-Hopwood(캐나다) / 제1부위원장 : Capt. Ibraheem Olugbade(나이지리아), 제2부위원장 : 홍기훈 박사(과학그룹의장 / 現 KIOST 원장)

○ (참석자) LC 당사국(38), LP 당사국(28), 옵저버(8), NGO 대표 등 225명

\* 아국(총 7명) : 정부대표 3명, 자문단 4명(KIOST 3, 이화여대 교수 1) 참석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4) 제37차 런던협약 및 제8차 런던의정서 과학그룹회의('14. 5월 美. 뉴올리언스) 결과에 대해서 논의함

- '15년 과학의 날 주제로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승인하고, 동 과학그룹 의장 연임 등을 승인함

○ (의제 5) 해양시비(Ocean Fertilization)를 포함한 해양지구공학(Marine Geoengineering) 활동 규제에 관해 집중 논의함

- 동 활동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재확인 하고, 2개의 지침\*(Guidance)을 당사국총회 Circular로 회람시키기로 결정함

\* (지침) ① 해양지구공학활동 심사를 위한 전문가 명부 운용 ② (새로운) 해양지구공학 활동들에 관한

검토

○ (의제 6) 당사국의 이산화탄소 격리 기술 및 관련 정보를 교환함

○ (의제 9) 심해저 채광(Sea-bed mining) 관련하여 런던협약/의정서와 국제해저기구(ISA)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 심해저 채광은 런던의정서에서는 투기에서 제외(제1조 정의 4.3항)되어 있어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해저기구와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

▣ MSC 94 회의개최('14. 11. 17~11. 21)

□ 회의 개요

○ 제94차 해상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회의

\* 의장 : Mr. Christian Breinholt(덴마크) / 부의장 : Cap. M. Segar(싱가폴)

○ (참석자) 회원국(104개국), 옵저버국 및 NGO 대표 등 약 900명 참석

\* 아국(총 19명) : 해상안전국장, 해양관 등 정부 대표 9명, 자문단 9명(KR, KST 등)

□ 주요 논의결과

○ (의제 18) 아국, 호주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e-Nav 전략이행계획(SIP) 향후 IMO 작업 계획 반영 등 제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함

- e-Nav 전략이행계획의 이행이 중요하며, IMO가 이행의 주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회원국간 공감대를 형성함

- 다만, 향후 작업계획 반영과 관련하여서 각 작업의 우선순위, 완료시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따라서, 18개 과제에 대해 추후 우선순위,

- 구체적 작업일정 등 검토 후 차기 회의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
- \* 향후 동 작업에 대해서는 노르웨이가 coordinator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함
- (의제 3) Polar Code 중 Part I(해사안전 분야) 및 동 Code의 강제화를 위한 SOLAS 제14장(극지해 선박안전조치)을 각각 채택함 (Adoption)
- 극지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Polar Code를 적용하고, 부담 경감을 위해 단일 항해 선박에 대한 검사면제 규정\*을 신설함
- \* 코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추가 설비 및 구조변경이 없을 경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극지선박증서(PSC)를 발급 가능
- Polar Code 요건에 따라 훈련된 선장 및 항해사 이외에 극지해역 항해전문가(도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 극지해 운항 제한사항 결정을 위한 방법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함 (차기회의시 결과보고 예정)
- ※ 동 코드의 Part II(해양환경 분야)가 추후 MEPC 68(2015년)에서 채택될 예정 일정을 감안하면 '17. 1. 1일 발효가 예상됨
- (의제 9) NCSR 1 주요 논의결과를 검토하고, 특히 e-Navigation 전략이행 계획(SIP) 등을 승인함
- 특히, 모든 현존선에 적용하도록 한 도선사 승강장치 SOLAS V/23 규칙에 대한 통일 해석\* 관련 회람서 초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 '12. 7. 1일 전에 설치된 도선사용 승강장치를 '12. 7. 1일 이후 교체시 예외 없이 모든 선박의 도선 사용 사다리에 대하여 반대경사 15도를 인정하여 해수면에서 승선 지점까지 거리가 9m 초과시 컴비네이션 사다리 설치 필요
- (의제 14) 지난 회의시 아국이 제안한 “해적 피해 선원 및 가족 복지에 대한 잠정 지침서”에 대한 그간 진행 진행상황을 검토함
- \* 아국은 UN CGPCS(소말리아해적퇴치 연락그룹) W/G3 의장국(의장 : 허철 대사)
- ILO는 선주, 선원단체 등과 3자 협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결정 예정이며, 아국은 동 지침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발언을 실시함
- 관련 참고사항
- (Award 시상식) 2014년도 IMO 바다의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함 ('14. 6월 IMO 이사회에서 수상자 기 결정)
- 바다의 의인상 : Britannia Seaways호 선장(Andreas Kristensen)과 그 승무원 (덴마크 정부 추천)
- 우수상 : 아국 2건, 아르헨티나 1건
- (양자 실무회의) 한-EMSA(11. 17), 한-일(11. 20)간 실무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차기 양자 간 회의일정 및 논의 잠정의제를 협의함
- IMSO 23 총회개최('14. 11. 25~11. 28)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23차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총회
- \* 의장 : Mr. Enrique Manalo(필리핀) / 부의장 (3명) : Mrs. Armena Richards(라이베리아), Mrs. Cynthia Mulville(아르헨티나), Mr. Vito Chirico(이탈리아)
- (참석자) 회원국(88개국), 옵저버국(3) 및 NGO 대표 등 약 300명
- \* 아국 (총 4명) : 주영대사관 해양관, IMO 연락관, 해수부 담당사무관, 자문(KR)

□ 주요 논의내용

- (의제 1) 금번 총회 의장(아·태 지역 順)을 대표하여 Mr. Enrique Manalo(주영 필리핀 대사), 부의장으로 지역별 대표자 3명\*을 각각 선출함

\* (아프리카 지역)

Mrs. Armena Richards – 라이베리아 출  
(아메리카 지역)

Mrs. Cynthia Mulville – 아르헨티나 출  
(유럽 지역) Mr. Vito Chirico – 이탈리아 출

\*\* 총회 의장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선출되며 차기 의장은 아프리카 지역 순서

- (의제 5) 차기 총회(2016년)까지 활동할 IMSO 관리이사회(Advisory Committee) 이사국\*으로 아국을 포함하여 총 39개국을 선출함

\* 이사국은 총회(격년)에서 선출, 아국은 제20차 총회(2008년)부터 그 지위를 유지

- 총회 의장은 부의장(3)이 중심이 되어 이사국(현재 38개국)을 지역별 안배, 운영 규정\* 등을 고려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함(최대 36개국 제시)

\* 총회 운영절차(제17조) : 관리이사국은 최소 15개국 이상 최대 총회원국의 1/3(33개국)로 결정하도록 규정

- 최종 논의결과, 금번 IMSO 사무국장을 배출한 방글라데시를 추가하여 아국을 포함 총 39개 국가\*를 관리이사국으로 선출함

\* (IMSO 이사국 현황) 총 39개국 중 아메리카 지역 8개국(전체 21%), 아프리카 8개국(21%), 유럽 11개국(28%), 아시아 12개국(30%)

- (의제 6) 잠재적 신규 GMDSS 사업자(예 : Iridium)의 관리감독 및 선정을 위한 기술·운영 적합성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함

- 지난 IMO 제94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 결과에 따라 IMSO가 신규 GMDSS 사업자의 적합성 평가 전문기구로 결정됨
- 향후 신규 GMDSS 사업자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선정, 새로운 GMDSS 사업자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추진계획을 NCSR 2 회의(2015. 3)에 보고할 예정임

- (의제 7) 관리이사회에서 집중 논의 후 제출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시스템(LRIT) 데이터 센터(DC)의 과금 방식을 최종 채택함

- 데이터센터(DC)를 2가지 변수(선박 수, Flag 수)로 조합하여 감사비를 DC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과금 계산식을,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최종 채택하고, 동 논의 경과를 MSC 95차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 동 LRIT 과금방식 적용시, 아국의 감사 부담은 축소(£8,500 → £5,300)

- (의제 8) 2016. 4월 임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IMSO 사무국장(Director General)으로 Captain Moin AHMED(방글라데시)가 선출됨

- 동 선거에 총 5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추천국 대표의 소개 인사말과 후보자 소견 발표(국가별 15분)를 일괄 진행한 후 투표를 진행함

\* 투표자의 2/3 득표자가 최종 당선(단, 최종 2인간 경쟁시 다수득표자 당선)

- 1차 투표에서 프랑스 후보, 2차 투표에서 독일 후보, 3차 투표에서 이태리 후보가 각각 탈락하고, 최종 4차 투표에서 방글라데시 후보가 당선됨

출신국가	1차	2차	3차	4차
방글라데시	42	45	48	49
이탈리아	13	14	15 (탈락)	-
프랑스	9 (탈락)	-	-	-
루마니아	13	14	24	37
독일	10	13 (탈락)	-	-
유효표	87	86	87	86
당선표(2/3)	58	58	58	과반수 (44)

\*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Captain Moin AHMED (방글라데시)는 현재 IMO에서 Senior Technical Officer(P-5)로서 근무 중임

- 신임 사무국장 선출 후 총회 사무국장 임명 및 선출 절차 4항에 따라, 총회 의장과 당선 사무국장이 새로운 IMSO 사무국장 계약서에 서명함

○ (의제 10) 승인을 요청한 2015년/2016년 IMSO 예산(안)은 원만한 업무인수 인계를 위해 Flexibility(4.5%)를 추가 반영하여 승인함

- 많은 회원국은 일련의 조직개편 및 퇴직자('15. 4월 사무국장 교체, '15. 6월 예산·행정 부서장 퇴직) 등 고려 시 원만한 조직 운영이 중요하며 총회에서 필요한 예산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현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의 임명 등은 전적으로 사무국장의 고유 권한임이 IMSO 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함

- 최종 논의결과 제안된 2015/2016년 2개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향후 사무국장이 IMSO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이사회와

상의하여 예산의 4.5% 이내에서 예산 잉여분이나 비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함

### ■ Council 113 회의개최('14. 12. 1~12. 4)

####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113차 IMO 이사회(Council 113) 회의

\* 의장 : Mr. J. Rantz(미국) / 부의장 : Mr. D. Ntuli(남아공)

○ (참석자) 이사국(40개국), 옵저버국, IGO, NGO대표 등 약 350명

\* 아국(총 7명) : 해양관, 해사안전정책과장, 연락관, 담당사무관, 자문 3명(KR, KST)

#### □ 주요 논의내용

○ (의제 3) IMO 전략계획(Strategy Plan), 계획 및 개선(Planning and Reform)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함

○ (의제 4) IMO 예산 및 인적자원 등 자원관리 운영현황에 대해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잠정적으로 승인함

○ (의제 5) '16. 1. 1일 시행 예정인 IMO 회원국 강제감사제도(MAS)에 대한 사무국 검토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

- '16년도 수감 예정 회원국 중 감사 수감이 불가능한 4개 국가\*(기니 바사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네팔, 소말리아)는 감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함

\* 감사 대상이 되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거나, 감사수감 관청이 실질적으로 부재

- 또한, 감사 수에 부족함이 발생할 경우, 다음

- 년도 수감예정 국가 중 자발적 수감 의사를 밝힌 국가가 부족한 수를 채우는데 동의함
- \* 우선 '16년도는 VIMSAS 체제하에 자발적 수감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수감하지 못한 국가에 우선권을 주자는 주장(바하마)이 많은 지지를 받아 이를 승인함
- (의제 12) '14년 세계해사의 날(WMD) 행사와 관련 모로코측 병행행사(parallel event) 결과에 주목하고, 향후 동 행사 예정국을 잠정 결정함
  - '15년 WMD 주제는 “해사 교육 및 훈련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이고, '15년 WMD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이며,
  - '16년/터키, '17년/파나마, '18년/폴란드, '19년/콜롬비아 개최를 결정함(금번 회의시 '20년, '21년에는 남아공, 이란이 각각 개최 의지를 표명함)
- (의제 15) Mr. Koji Sekimizu IMO 사무총장이 현 임기 종료('15. 12. 31) 후 연임을 희망하지 않음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해 논의함
  - Council 의장은 현 IMO 사무총장이 내년 말 현 임기 종료 후 개인적 사유로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소개함
  - \* 숲 회원국은 아쉬움과 사무총장의 동 의사결정 존중 입장 등을 표명함
  - 향후 후임 사무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 및 조치사항\*에 대해 주목함
  - \* 사무총장이 관련 Note Verbale 발행 → 동 사무총장직 후보자 지원 서류를 제출('15. 3. 31까지) → 사무총장이 동 후보자 현황을 회원국에 회람 → 후임 사무총장 임명을 위한 이사회 선거('15. 6. 29~7. 3) 실시 → 총회 승인('15. 11~12월)

- 관련 참고사항
  - '14. 6월 제112차 이사회 시 선정된 2013년도 국제해사상(Maritime Prize)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함('14. 12. 1, 17:30 / IMO 본회의장)
    - \* Maritime Prize 수상자 : Dr. Jose Eusebio Salgado y Salgado(멕시코)
  - 아국 수석대표 주관으로 아프리카 이사국(케냐, 라이베리아, 모로코, 남아공) 대표를 오찬에 초청, 8연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교섭활동 등을 전개함
    - \* 참고로, 아국은 금번 이사회 회의기간 중 Coffee break 1회 제공함(12. 2, 오전)

## 2. 하반기 주요 국제해사동향

- ▣ 항만용 이동식 평형수관리시스템(BWT) 개발
  - 새로운 이동식 평형수관리시스템의 개발로 미국 및 IMO의 규정에 따른 고정식 BWT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선사에게 대안이 제시됨
    - 컨테이너 타입의 이동식 BWT는 항만에서 선박의 평형수 배출시 이용될 수 있고, 고정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나 선령이 많고 고정식 설치비용이 높은 선박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 네덜란드는 Emshaven 및 Delfzijl항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이동식 BWT를 설치한 부선을 건조하고 있음
  - 또한, 선박에 설치된 평형수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백업시스템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박에는 평형수 배출용 표준연결구만 요구됨

## ■ NATO, 대해적 임무를 2016년까지 연장 결정

- 지난 6.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대해적 작전인 “Ocean Shield”를 2016년 말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스페인, 이탈리아 및 터키 해군으로 구성된 NATO 소속 선박은 '09년 8월부터 북쪽 아라비아만부터 남쪽 세이셸 제도까지, 서쪽 아덴만에서 동쪽 몰디브까지 2백만 평방 마일(서유럽 크기)의 수역을 감시해옴
  - 2012년 5월 이래 해적 피랍사고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NATO는 해적의 의향과 능력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 동 작전으로 세계 해상물동량의 약 절반이 통과하는 최대 폭주항로(인도양)를 수호함으로써, 국제적인 해적퇴치 노력에 기여하고, 세계 경제비용 절감에 일조하고 있음
- \* World Bank(13년)는 해적이 세계경제에 연간 약 180억불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추정

## ■ EU, 싱글윈도우 선박입출항 보고체계 도입

- 유럽위원회(EC)는 EU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싱글윈도우를 통해 전자보고를 하도록 하는 보고절차지침(Directive 2010/65)을 채택함
  - 현 보고절차는 중복 보고와 처리시간 경과로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항만 입출항 수속 업무 구현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어 왔음
- EC는 또한 2015년 6월까지 현 보고체계의 단순화 및 연계성 달성을 위하여 EU 회원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함
  - EC 및 회원국은 진정한 조화 및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하여 지방 및 국가별 관련 당국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음

## ■ ICS, 조난자 구조계획 지침서 발간

- 국제해운회의소(ICS)는 IMO 신규 규정에서 요구하는 선사의 “조난자 구조를 위한 선박별 계획 및 절차” 수립을 돕기 위한 지침서를 발간함
  - \* SOLAS 개정안에 따라, 2014. 7. 1부터 모든 선박은 구조설비 및 구조작업에 참여하는 선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식별하는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이 지침서는 해당 계획 및 절차 수립 시 고려할 사항과 조난자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식별되는 기존 설비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 전용설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선사가 어떻게 구조작업 전략을 문서화하는 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싣고 있으며, IMO에서 개발한 지침서와 함께 보도록 권고함
  - \* 동 지침서는 [www.ics-shipping.org/docs/recoveryofpersons](http://www.ics-shipping.org/docs/recoveryofpersons)에서 다운 가능

## ■ 일 대형선사, 세계최초 정기북극항로 개시예정

- 일본 Mitsui O.S.K Lines는 2018년 초년부터 세계최초로 북극항로를 통한 정기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러시아 Yamal LNG 프로젝트에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LNG를 수송할 3척의 쇄빙 유조선을 투입할 계획임
  - 중국 China Shipping(Group) Co.과 공동 운항할 계획이며, 유조선은 한국 대우조선소

에서 건조(1천억엔, \$99억달러)하고 있다고 전해짐

■ 홍콩항, 선박 배기가스 통제시작

- 홍콩정부는 7. 18일, 선박 배출가스 통제를 강화하는 해운 및 항만통제법령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당일 시행함을 알림
  - 해운 및 항만통제법령의 개정령은 홍콩항 입항선은 어느 경우여라도 3분 이상 동안 링겔만 농도표의 2단계 이상의 짙은 배기가스 배출을 금지함
- \* 링겔만(Ringelmann) 농도표 : 약식 연농도측정법으로 매연의 정도에 따라 색이 진하거나 연하게 나타나며 보통 0에서 5의 6단계로 구분함
  - 선박소유자, 대리점 및 선장은 1차 위반시 각각 25천 홍콩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 위반시 50천 홍콩달러가 부과됨
- 또한, 연안해운법령(Cap. 548)을 개정하여 내항 선박이 같은 조건을 1차 위반시에는 10천 홍콩달러를 부과하고, 추가 위반시 25천 홍콩달러를 추징하도록 정함

■ '16년 휴대용가스탐지기 탑재 강제화 전망

- SOLAS 3장 제19조가 2015. 1. 1일부터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내 폐쇄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을 최소 2개월에 한번 시행해야 함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6. 7. 1부터 휴대용 가스탐지기 탑재가 강제화될 전망이다
- 휴대용 가스탐지기는 선박 설비의 하나로써 폐쇄구역 진입 전, 산소 농도, 폭발성 가스, 일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함

■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제2수로 건설계획 발표

- 이집트 정부는 새로운 수로의 건설계획을 밝혔으며, 수에즈운하청은 新 수로가 現 수로와 72km 정도 평행하게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통과 선박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음
- 제2 수로는 양방향 통항이 가능하여 완공이 되면 통항지연 및 지체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이용선사의 호응이 예상됨
-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09년 제시되었으나 정치적 불안으로 유보되었던 것으로 국제물류허브 건설을 포함하여 약 82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해운업계, 기니만 해적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 해운업계(BIMCO, ICS, INTERTANKO 및 INTERCARGO)는 기니만 지역의 對해적 대응을 위한 지침서\* 개정판을 발간 (각 홈페이지 배포)
- \* Guidelines for Owners, Operators and Masters for Protection Against Piracy in the Gulf of Guinea Region
  - 최근 앙골라와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사고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
  - 또한,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적 대응 포컬 포인트로 설립되는 기니만 해상수송정보 공유센터(Maritime Trade Information Sharing Centre for the Gulf of Guinea, MTISC GOG)의 보고절차 등도 수록함

■ 故 박지영 승무원, 로이드 리스트 선원상 수상

- 로이드 리스트는 2014년 Global Awards\*

시상식(9. 30)에서 세월호의故 박지영 승무원을 올해의 선원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함

- \* Global Awards는 해운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용감한 선원 및 혁신적인 장비 개발자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시상 행사임
- 2014년 최고 기업상은 Costamare, 최고 화제상은 머스크사 최고경영자인 S. Skou, 공로상엔 the Foresight그룹 수석회장인 R. Mehrotrad가 수상

#### ■ 선원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건안전지침 개발

- 10월 13~17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2006 국제해사노동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정의 이행을 돕기 위한 지침서가 개발됨
  - 국내법 반영 및 관련조치에 필요한 보충적 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노동 여건, 잠재적 위험작업, 고립, 장시간 근무, 엄격한 조직구조 및 스트레스 및 피로를 포함한 해상근로여건에 대해 다루고 있음
- \* 각각 정부, 선사 및 선원을 대표하는 전문가 6인, 42개국에서 온 옵저버 및 자문단과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옵저버를 포함하여 102명이 참석함
- 전문가회의에서는 알코올 및 약물중독, 폭력 및 괴롭힘과 전염질병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함
  - 지침서는 사고 및 질병예방 조치, 이행, 교육 및 비상/사고대응과 관련된 정부, 선사 및 선원의 책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함

#### ■ '13년 미국에서 환경보호 및 안전관련 결함에 따른 출항정지율 증가

- 미 연안경비대 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출항정지 건수는 감소했으나, 연료유 비상차단밸브 결함에 의한 출항정지는 증가함

- \* 연료유 비상차단밸브는 기관실의 화재 또는 기관 고장 등 비상시에 연료탱크로부터 엔진에 공급 되는 기름을 원격차단하기 위한 장치임
- 2013년부터 현재까지 비상차단밸브 미작동에 의한 출항정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원이 임의적으로 비상차단밸브의 작동을 막아 놓기 때문으로 분석됨
- 아울러, 기관구역을 보호하는 고정식 소화설비의 결함도 주요 출항정지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 ■ Paris MoU, MLC 관련 결함으로 113척 출항정지

- Paris MoU는 국제해사노동협약(MLC 2006) 발효 후 실시한 항만국통제(PSC)에서 MLC 관련 결함으로 113척의 선박이 출항 정지되었다고 설명
  - MLC 점검은 Paris MoU의 27개 회원국 중 2012. 8. 20일까지 MLC 협약을 비준한 12개 국가만 참여하였으며, 출항정지 건수는 동 MoU내 총 출항정지 조치(648건)의 17.4%을 차지함
  - 지적된 총 46,798건의 결함 중 3,447건(7.4%)이 MLC와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이 중 출항정지 관련 결함은 160건(4.6%)이었음
  - 출항정지 관련 주요 지적사항은 임금지급(39.5%)과 승무원(28.6%)이었으며, 결함률이 높은 분야는 보건 및 사고예방(43.1%), 식음료(15.4%) 및 거주시설(10%)이었음

※ 자세한 내용은 IMOKorea 홈페이지(www.imokorea.org)에 게재되어 있습니다.